동방신기 해체 반대, 팬들이 나섰다..20만 서명 운동

남안우 · 입력 2009. 8. 4. 09:59 · 수정 2009. 8. 4. 10:01

'80만 카시오페아는 어떡하라고?'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가 소속사와 법정 분쟁에 휘말려 해체설이 대두된 가운데 팬들이 직접 나서 동방신기의 해체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방신기의 공식 팬클럽인 카시오페아 회원들을 비롯해 많은 팬들은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의 3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지난달 31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통해 동방신기 해체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최대 2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4일 오전 9시 현재 1만 9579명이 서명했다. 서명운동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다.

팬들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은 동방신기의 해체만은 막아보자는 순수한 마음에서다. 이들은 아고라와 각종 카페 게시판에 "동방신기는 영원히 하나"라며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소속사의 노예 계약 수정을 요구한다"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철폐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팬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중국 포털사이트 신랑(sina)왕은 동방신기와 소속사와의 갈등이 해체 위기를 불러오자 '동방신기 팀원의 계약해지 요구 대한 견해'라는 설문을 던졌다.

그 결과 과반수가 넘는 52.1%(약 4000명)에 달하는 팬들이 "계약에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동방신기를 응원한다"고 답했다. 또 "5인의 멤버가 흩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32.3%에 달해 해체를 적극 반대했다.

아시아의 각국 팬들은 "멤버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동방신기 3인의 입장 표명이 한 몫 했다. 이들은 3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 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동방신기 전원은 데뷔 후 올해까지 현금만 총 110억원을 수령했고 고급 외제차를 보너스로 제공받았다"며 "동방신기가 데뷔한 후 4년간 소속사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광고를 비롯해 이벤트, 초상권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었는데도 세 멤버는 한 측면만 부정확하게 부각시켰다"고 반박했다.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으로 해체설이 대두된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모바일 마이데일리 3693 + NATE/magicⓝ/ez-i- NO1.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